운경 스님 “아상 커지면 패망…정법 실천”

태고종, 종정예하 신년하례 봉행
1월 13일 서울 백련사 대웅전서
법어 前 대중에 “존경한다” 인사
상진 스님 “이사무애 정신 구현”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태고종은 1월 13일 서울 백련사 대웅전에서 을사년 종정예하 신년하례법회를 봉행했다.

“우리는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잘 봐야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아상(我想)을 놓고 살아야 합니다. 아상이 커지면 아만(我慢)이 되고, 아만이 더 나아가면 오만(傲慢)이 되며, 오만이 커지면 패망하게 됩니다. 우리 정치 사회도, 종단도 불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는 스스로를 잘 살피십시오.”

태고종 종정예하 운경 대종사가 태고종도를 비롯한 국민들에게 신년법어를 설하고 아상을 내려놓는 한 해를 강조했다. 종단 후학들에게는 부단한 정진과 정법 실천을 강조했으며, 정치인들에게는 아상을 내려놓고 국정에 임할 것을 당부했다.

태고종(총무원장 상진 스님)은 1월 13일 서울 백련사(주지 동허 스님) 대웅전에서 을사년 신년하례법회를 봉행했다.

사부대중의 하례를 받은 운경 대종사가 강조한 것은 부단한 정진이다. 운경 대종사는 “‘일일시호일(日日是好日) 월월시호월 (月月是好月) 년년시호년(年年是好年)’이라 했다”면서 “매일매일이 좋은 날이 되려면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 노력과 정진의 매일이 이어질 때 더 좋은 달이 되고, 1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상을 내려놓을 것을 강조한 운경 대종사는 정치인들에게 일침을 내렸다. 대종사는 “조선시대 선조와 인조가 정치를 잘못해서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이 발발했고, 무능한 정치로 인해 일제강점기라는 아픔도 겪었다. 다시는 이런 아픔과 슬픔이 있어서는 안된다”면서 “정치인들은 한발 물러나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 지금 자신이 붙잡고 있는 것이 전부인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난 이후 돌아보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당부했다.

총무원장 상진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동체대비의 실천을 강조했다. 상진 스님은 “불교가 앞장서서 모든 이념을 통합하고 서로 다름을 인정하는 포용력을 통해 종단과 국가 그리고 사회가 모두 세계일화의 정신으로 나아가도록 전진하자”며 “종정예하의 법어처럼 화합과 상생의 지혜를 실천하여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며 갈등을 치유하는 일에 대해 우리 모두 매진하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백련사 주지 동허 스님도 인사말에서 “지난해의 마지막은 참 어렵고 힘들게 넘어갔다. 새해에는 사회가 평안을 되찾고 대한민국의 저력을 보여줄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헌승 정각회장은 축사에서 “새해에도 내면의 평화를 찾고 올바르게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을 가르쳐주고 국민들의 마음을 치유해줄 수 있는 힘을 주시기 바란다”며 “부처님 가르침 속에서 부단히 노력하면서 정치가 국민을 편한케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불교문화사업단 국장에 본연·하원 스님

1월 14일 임명…종무특별보좌관 이규민 위촉


본연 스님 하원 스님 이규민 종무특보

한국불교문화사업단 사무국장에 본연 스님, 문화사업국장에 하원 스님이 임명됐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1월 14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임명장을 전달했다. 진우 스님은 새로 임명된 사업단 국장들에게 “템플스테이가 한국불교 세계화와 포교전법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일선에서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 사무국장 본연 스님은 마가 스님을 은사로 2007년 수계했다. 감천사, 호국금강사, 호국홍익사, 기룡호국사, 보라매법당 등 군사찰과 동도선사 주지를 역임했다. 현재 현성정사 주지다.

문화사업국장 하원 스님은 설조 스님을 은사로 2009년 수계했다. 현재 영월 망경산사 주지를 맡고 있다.

같은 날 진우 스님은 조계종 정무특별보좌관에 이규민 전 국회의원을 위촉했다. 진우 스님은 “불자로서 신심이 특출나고 국회의원을 수행한 만큼 정무적인 사안들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잘 도와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이규민 정무특별보좌관은 더불어민주당 제21대 국회의원(경기 안성), 안성신문 대표이사 겸 발행인을 역임한 바 있다. 임은호 기자

교구본사주지협 “가톨릭 세계대회 특별법은 헌법 위배”

1월 15일 통도사 해장보각서 제82차 회의

“범종단 연대 한목소리” 공의 모아
성보유산 DB구축 등 현안 논의도


교구본사주지협의회는 1월 15일 회의에서 ‘세계청년대회 특별법’을 제지하기로 결의했다.

전국교구본사주지협의회(회장 등운 스님)가 “한국 가톨릭이 준비 중인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특별법’은 헌법에 위배되는 움직임”이라며 “모든 역량을 총 결집해 연대하고 제지할 것”을 결의했다.

전국교구본사주지협의회는 1월 15일 영축총림 통도사 해장보각에서 제82회 조계종 교구본사 주지협의회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교구본사 주지 스님들은 △‘헌법정신 위배하는 가톨릭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특별법 저지 대책위원회’ 구성 및 활동 경과 보고(총무부) △문화체육관광부 종교문화시설 관련 지침 관련 안내(기획실) △〈성보문화유산 DB구축〉 시범사업 보고(문화부) △2025 국제선명상대회 협조요청의 건 등 현안(미래본부)들을 보고받고 논의했다.

가톨릭 2027 서울세계청년대회 지원 특별법은 지난해 11월 7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 등 59인, 11월 19일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등 11인이 동일한 제목으로 발의한 내용이다. 이에 대해 조계종 종단은 반헌법적 내용으로 규탄하며 종희의장 주경 스님을 위원장으로 대책위를 구성했다.

교구본사 주지스님들은 ‘가톨릭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특별법’에 대해 “범종단적으로 연계하고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함께 했다. 백양사 주지 무공 스님은 “가톨릭 성역화 움직임에 대해 조계종 뿐 아니라 종단협의회와 함께 연대하고 이웃 종교와의 교류로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 가톨릭의 뻔뻔한 선교 활동에 강력 대처를 해야 한다”며 “범불교적 연대를 통해 한 목소리로 성토해야 뼈아픈 울림으로 다가갈 것”이라고 말했다.

화엄사 주지 덕문 스님도 “모두의 입장을 공의로 모아 전달하는 강력한 대처가 요구된다”며 “국회 측에 명확한 의사를 전달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마곡사 주지 원경 스님은 “국민의 세금인 국고를 사용해 가톨릭 선교활동에 사용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스님은 “기재부 등 정부에 의사를 강력히 전달해야 하며 종교편향적인 행위를 막아내야 한다”며 “그들이 성역화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미리 자세히 알고 저지하며, 신속한 대처가 필요하다. 가톨릭 성역화에 해당되는 교구본사는 역량을 더욱 결집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성토했다.

법주사 주지 정덕 스님은 “가톨릭 순례의 길 조성에 각 군수와 단체장이 나서고 있다”며 “가톨릭 성지화 움직임이 크다. 관련 지역 교구장은 예민하게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의장 등운 스님은 “심각한 사안으로 모두가 예민하게 생각하고 있다. 적극적인 대응 대처를 요구하셨으니 귀를 기울이고 함께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총무부장 성화 스님은 “오늘 교구본사 주지스님들이 말씀 주신 내용을 숙고해 범종단적으로 대책위를 구성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제83차 교구본사주지협의회 회의는 3월 17일 봉선사에서 개최된다. 통도사=하성미 기자

용주사, 제주항공 참사에 5000만원 지원

진우 스님 “마음 모아줘 고맙다”

용주사 본말사가 지난해 12월 29일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들의 조속한 피해 지원을 위해 마음을 보탰다.

조계종 제2교구본사 용주사(주지 성효 스님) 소속 본말사 스님들이 1월 1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하고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희생자 피해 지원금’ 5000만원을 전달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1월 18일 무안국제공에서 제주항공 희생자들의 합동 추모식이 있었고, 49재는 광주 무각사에서 봉행하기로 했다”며 “안타까운 사고를 당한 희생자들을 위해 마음을 모아줘서 고맙다”고 전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 용주사 부주지 밀연 스님, 총무국장 중밀 스님, 수도사 주지 성인 스님, 봉녕사 주지 진상 스님이 동참했다.

김민재 기자



용주사 본말사가 제주항공 희생자 지원금 5000만원을 진우 스님에게 전달했다.

한국불교의 미래를 리드하는 동방불교대학이 새로운 인재를 기다립니다.

동방불교대학 2025학년도 신입생 모집 공고

Ⅰ. 모집요강

1. 본교는 본 종단의 종법(교육법 제19조)이 정한 기본 교육기관으로서 출가득도자의 의무교육기관이다.
2. 본 종단의 합동득도 수계산림을 통해 사미(니)계를 수지한 자 및 정사(재가승)는 본교에 입학해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승적취적 및 법계 등 각종 자격고시 응시자격을 부여받는다.
3. 본 종단으로 전종하여 입적할 승려는 본교에 입학해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해야한다.
4. 범패학과 신입생은 매년 1학년 입학을 원칙으로 한다.(편입학 불가)
5. 본교가 개설하고 있는 모든 학과 공히 출가자(사미·사미니 포함)와 재가자 모두 응시 가능하다.
6. 본교는 한국불교태고종이 설립한 종도양성 의무교육기관으로서 정부당국의 인가여부와 무관하다.

Ⅱ. 모집인원 및 편제

학 과	모집인원	편 제	비 고
불교학과	00명	2년제	정규반
범패학과	00명	2년제	정규반

Ⅲ. 전형일정

구 분	날 짜	장 소
원서교부 및 접수	2024. 12. 16(월) ~ 2025. 02. 07(금)	· 동방불교대학 교학처 · 인터넷 교부. 접수 :www.dongbang.org
서류심사 결과 및 합격자 발표	2025. 02. 14(금)	· 개별통지 및 홈페이지 공고 ※입학식 및 학사일정 추후 공지

*입학전형의 서류심사는 학사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Ⅳ. 지원자격

◎ 본교 지원자는 공히 다음 사항 중 한 가지 이상의 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1. 본 종단의 합동득도 수계산림을 통해 사미(니)계를 수지한 자 및 재가자로서 본교에 입학을 희망하는 자
2. 본 종단으로 전종하여 입적한 승려로서 교육이수 의무대상자
3. 고등학교 졸업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소지자로서 불교교학·불교의식을 수학하고자 하는 자
4. 본 종단 간부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불교교학·불교의식을 수학하고자 하는 자

♣ 특전: 본종 승려가 동방불교대학 졸업 시 선덕 법계 품수

Ⅴ. 제출서류 및 접수방법

학 과	제출서류	접수방법
공 통	1. 입학원서(소정양식) 1부(필수) 2. 최종학교 졸업(예정)증명서 1부(필수) 3. 기본증명서 1부(필수) 4. 사진: 반명함판 2매(필수) (득도수계자는 가사·장삼 수한 모습) 5.수계증 사본 1부(해당자) 6.종단간부 추천서 1부(해당자)	1. 동방불교대학 교학처 직접 방문 및 이메일(dongbang2030@naver.com), 우편 접수 ※ 문의 : 동방불교대학 교학처 T. 02-745-2030, 010-3089-9983

Ⅵ. 교육비

■ 전형료 : 5 만원
■ 입학성금 : 20 만원
■ 등록성금 : 학기당 70 만원 농협 301-0212-6468-11 예금주/한국불교태고종 동방대불원

▣ 입학문의

한국불교태고종 종립 동방불교대학 교학처 :
www.dongbang.org
우)03062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1길 31(사간동112)
TEL: 02-745-2030, 010-3089-9983,
FAX: 02-733-0728